

채란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난가제도 재정립을 통한 농가 이익 극대화에 노력...

2008년도는 우리 양계업계에 변화를 위한 진통이 그 어느 해보다도 심하였던 것 같다.

양계업계는 변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으며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도 어렵다고 본다. 지난 해의 채란업계에 가장 심각하였던 과제는 병아리 과잉생산에 따른 계란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생산원가에도 불구하고 계란가격을 적정하게 받을 수 없었던 점이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게 하였으며 무더운 여름 마지막 날에 서둘러 개최하게 된 전국 채란인 대회의 열기는 역대 어느 채란인 대회보다 성공적이었다고들 자평을 하였으나 대회 이후 결의사항을 지키는 양계인들의 의식구조의 변화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리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진일 보한 해였다.

2009년도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꼽으라면 **유통구조상의 불합리, 의무자조금 조속한 실시, 과잉생산 조절, 그리고 SI 대책과 차단방역**에 역점을 두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유통구조상의 불합리 문제

계란 유통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안은 난가 제도의 개선이다. 그리 넓지도 않은 나라에서 각 지방별로 가격을 발표함으로써 모름지기 지역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전국적인 합의도 없이 난가를 일방적으로 내려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도 오히려 큰소리치는 작금의 난가



천 강 균

채란분과위원장/생금알농장대표

제도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세를 지금의 7개 권역(서울, 영주, 충청, 대구, 부산, 광주, 전주)에서 3개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줄여서 발표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국을 일원화하여 상인들이 지역 간의 시세를 두고 역이용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농장도 가격으로 발표되고 있는 시세에서 소위 D/C라 하여 30원에서 40원 까지도 디스카운트 당하면서도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거래되고 있는 악습과 오르내릴 때 전후로 2~3일씩 소급 적용하고 있는 실정을 협회의 임무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개선하여야 할 역점사업으로 삼으려 한다.

둘째, 의무자조금의 조속한 실시

계란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업체발전에 필요한 각종 교육 사업을 비롯한 행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채란분과 위원회에서 임의자조금을 거출하여 계란홍보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지난 몇 년간의 결과를 보면 임의자조금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납부하는 지역과 일부 양계인들은 매년 내고 있으나 참여하지 않는 지회나 지부들이 있기에 충실히 매년 납부하고 있는 측에서 불만이 고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모순된 임의자조금 사업을 지양하고 모든 양계인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제도를 확립하고자



노력을 경주한 결과 농림수산물부에서는 전국적인 산란계 전수 조사를 이미 끝내고 통계를 취합하여 산란계 의무자조금 대의원 80명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의원 선출이 되면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자조금 거출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 늦어도 2009년도 상반기에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여러 채란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부탁하고 싶다.

그 동안 임의자조금 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많은 채란인들과 산란종계 부화업자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셋째, 과잉생산 조절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산란계 병아리 생산은 과잉으로 생산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많은 연구와 대책을 강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채란인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생산물인 계

란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하여 협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채란업계의 진취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넷째, 질병방역 대책

질병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생산조절을 잘하고 고가의 난가를 발표하여도 농가의 수익은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역점사업으로 하여야 할 사업이 건강하고 생산성이 좋은 병아리가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계장의 차단 방역과 고품질의 병아리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는 물론 종계업계에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채란인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가일층 공격적으로 주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최근 또다시 세균성질병이 발생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백신 접종을 하고 그 역가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터지는 것은 어딘가 차단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차단방역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평온한 한 해가 되기를 모든 양계인 가족들에 심심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채란분과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역점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동참하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양계**

산란노계 출하 알선사업

본회에서는 산란계 산업 발전 및 농장의 안정적인 노계출하 기반을 확립하고자 산란노계 출하 알선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산란계 농장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전국의 산란계농장
- 가격 : 연간 고정가 350원/수(1.8kg기준)
- 대금결제 : 출하일 기준 다음주 금요일
- 신청 및 문의 : 본회 02)588-7651(담당 기영훈)